

# 조망경관의 맥락으로 본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

노재현 ·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The Sense of Place of Manghae-temple and Mt. Jinbong through Viewing Context

Rho, Jae-Hyun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one and only temple of on the coastline of the West Sea, Kimje's Manghae Temple and Mt. Jin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unique sense of place of the area by researching the location and view that clearly shapes the identity of the landscap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1. The cultural landscape of Manghae Temple and the natural landscape of Mt. Jinbong have characteristics which take in the coastline and skyline, respectively. Specifically, from the existential vertical-horizontal images of "sky - land - Mt. Jinbong" and "moon - cloud - sea", an ascending reflection of the landscape surroundings can be found.
2. The "Sea - Manghae temple - Mt. Jinbong - sky"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moderate 'inside-space' which belongs to the particular landscape area and which also shows the topophilia to Manghae Temple. Through this kind of interpretation, the sense of place of Manghae Temple and Mt. Jinbong reveals an intra-structure of an Imaging Landscape implying harmony and moderation, which is a unified organization of the surrounding phenomena(Temple and Mountain) and the essence (the doctrine of Buddhism) that matches Jin-muk's asceticism and lifestyle.
3. While the cultural landscape of Manghae Temple has a strong religious reference, the natural landscape Mt. Jinbong emphasizes the geography of the landscape. In other words, the motivating factor of Manghae Temple is a metaphorical sense of place such as through the "prospect of the sea" or "the Western Sea Paradise" and Mt. Jinbong, the landmark of the Kimje-Mankyung Plains and the focal point of the West Sea sunset, is highlighted as a simile for this sense of place.
4. Keeping this sense of place and territory respectively and showing the bond with the sense of place which develops rhythmically and continuously, Manghae Temple and Mt. Jinbong are sublimated into a unified intra-structure, which reflects the Imaging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Mt. Jinbong, a focal point of the Mankyung Plains facing the West Sea" and "Manghae Temple, looking out to sea".

*Key Words: Landscape Identity, Jin-Muk, Interpretation, Insideness, Intra-Structure, Topophilia*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 I. 서론

Yi-Fu Tuan(1976)은 장소란 “인간 활동의 중심이고, 작은 세계이며 행동이 모이는 결절점”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Norberg-Schulz(1980)는 인간의 존재, 거주(dwelling)와 관련된 의미로 파악하였듯이, 장소는 울타리 내부로서의 환경, 시각·실존 공간, 상대적 위치 및 시간, 그리고 경관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중층결정(surdetermination)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덕현, 1999; 이석환과 황기원, 1997). 장소(場所, place)의 한자 개념에서 장(場)은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평하게 다져놓은 양기의 의해 드러나는 땅’과 소(所)라는 ‘들어가 머무를 수 있도록 구획된 단위’가 합쳐져, ‘환경적으로 양호한 땅 위에 어떤 활동을 수용하거나 들어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간에 의해 구획되고 한정된 곳’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연과 문화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김제시 서단에 위치한 ‘진봉산과 망해사’에 대한 장소와 공간의 독자성과 일치성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진봉산과 망해사의 지리적 경관특성은 물론 역사와 의미 그리고 개인적 느낌을 대상으로 이들 세부 전달의미의 총합에 의해 나타나는 경관 또는 장소 고유의 특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망해사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봉산 고개 넘어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의 벼랑 위에 망망대해를 내려다보며 서 있어 이름 그대로 ‘망해사(望海寺)’이다. 그러나 현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명 아래 특유의 장소 맥락을 담은 입지성은 물론 고유 경관상의 퇴행적 변모가 예상되고, 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랜 시일 사회적 관심과 갈등 양상에 의해 인간과 환경의 이원론적 입장에서의 장소 또는 공간의 가치 파악은 중요성을 잃고 있다. 본 대상은 그 어느 공간보다도 장소의 보존이 요구되며 특히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통일체로서의 통합적 장소 접근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본 연구는 김제 망해사를 중심으로 입지 및 조망성을 조명하고 장소성을 구명하는 한편 경관주제를 탐색하여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인한 고유경관 변질 우려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장소 및 경관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일정 장소 혹은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주로 지리학자, 실존 철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각은 환경설계분야에 보다 완벽한 설계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승빈, 1991). 그러나 공간과 장소를 분리

해서 바라보는 한 환경 계획 및 설계가들은 장소만들기(place-marking)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공간창출(space-marking)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고 이러한 접근태도는 이 용자들에게 공간과의 일체감과 내부성의 일치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이석환과 황기원, 1997). Norberg-Schulz(1980)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를 두 가지 측면 즉, 공간과 특성으로 구분하고 공간 측면에서는 방향성의 중요성을, 특성 측면에서는 일체감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때 방향성은 자신의 위치 혹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며, 일체감은 자신의 장소와 친근해짐을, 혹은 장소에 속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과 일체감이 인간이 ‘거주’함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건이며, 방향성과 일체감이 어우러졌을 때 ‘장소의 영혼’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방향성과 일체감은 물론 공간과 기능의 용도 배분에서조차 근원적으로 상반된 철학과 윤리로 무장한 작금의 새만금 개발과 보존 논리의 중재를 촉구하는 탄원서와도 같이 ‘장소만들기’와 장소 변용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자 시사적이다.

장소는 주거환경에 대한 소속감으로 구체화되며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은 혼돈된 미지의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정위(Orientation)할 수 있고, 환경과 정서적, 의미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환경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장소는 정위와 동일시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환경에 정위하기 위해 장소의 공간조직이 필요하며, 환경과 동일화하기 위해 장소의 성격, 즉 분위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이정임과 김진균, 1987). 이와 같은 맥락 역시 망해사와 같이 공간특성의 변모와 정체성의 예측이 불확실한 공간에서의 미래 모습에 대한 좌표이자 좌우명이 될 것이다. 경관을 창조한 저자와 텍스트 공동체의 기록을 통하여 자연과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재음미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김덕현, 1999). 특히 전통사찰 등의 종교적 수행과 설법이라는 실제적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탐방이 지속되고 있는 공간으로, 경관과 주요 활동 및 총체적인 경험이 과거와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다른 문화역사공간의 대부분 실제적 기능이 소멸된 상태인 유적으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찰의 장소성이 다른 문화역사공간보다 더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이영경, 1996).

외부공간의 일부가 인식 주체인 인간에 지각되어 경관이 된다. ‘지각된 대상’으로서 경관은 주체인 인간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이 독해될 수 있는 텍스트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경관이 텍스트로 인식 주체에 의하여 독해되어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다시 자연미와 장소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통일체의 ‘내적 구조(intra-

structure)'를 보고자 함이다(Lim and Albrecht, 1987). 경관에 대한 설명은 텍스트인 경관과 설명자의 문화적, 지적 배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표현되며,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개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미 부여라는 관점에서 지각된 외부 공간의 자연경관을 '자연미'로 문화경관을 '장소성'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 경관은 문화를 실은 텍스트로서 독해되고 재독해된다. 지금의 경관 재독해는 자연미와 장소성이라는 현재의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현재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경관 망해사와 자연경관 진봉산이 어울려 이루어진 해안경관 또는 갯벌경관과 포구경관 그리고 평야경관의 또 다른 결합 및 분리 형태와 기능의 변용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관은 매우 동태적이다.

한편, Norberg-Schulz(1980)는 그의 저서 '장소의 영혼(Genius Loci)'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 우주적 질서, 특성, 빛, 시간의 5가지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물과 질서는 공간적 요소로, 특성과 빛은 일정 장소의 전체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로, 시간은 항구성 및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이상의 기본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경관을 실존적 입장에서 낭만적 경관, 우주적 경관, 고전적 경관 그리고 복합적 경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임승빈(1991)의 견해와 같이 경관 특성이 인간 존재 혹은 거주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가? 하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망해사와 같이 수도와 거처의 공간이자 전통성과 역사성의 개념이 명확하고 입지 공간적 위계가 뚜렷함은 물론 경관변동요인 특히 시간과 격동적 시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존경관의 분류와 유형화는 현상학적 경관정체성 파악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찰 망해사'를 중심으로 한 진봉산의 입지특성과 주요 시점의 조망구도 및 경관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망해사 편액이 걸린 낙서전 주련에 새겨진 칠언절구로 구성된 진묵대사 '계송(偈頌)'에 내재된 의미경관상의 해석이다.

##### 1) 망해사와 낙서전

망해사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평야 끝 앞은 벼랑 위에 위치해 있으며, 양양 낙산사, 여수의 향일암 그리고 서산의 간월암과 더불어 '바다가 바라보이는 절집'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연유로 망해(望海)란 이름이 붙여진 이곳은 백제 의자왕 2년(642년) 부설거사가 창건한 이래 당나라 승려 증도법사가 증



그림 1. 연구대상의 지리적 위치

창하였다. 경내에는 보광명전, 낙서전, 칠성각 요사, 그리고 입구에 4기의 부도가 일렬로 늘어 서 있다. 편액이 걸려 있는 낙서전은 문화재자료 128호로 지정되었다.<sup>1)</sup>

##### 2) 진묵대사와 계송

망해사를 증건한 진묵대사는 조선 명종 17년(1562)에 전북 김제군 만경현 불거촌(佛居村)에서 태어나서 1633년 봉서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곡차를 잘 마시기로 유명하고 신통력으로 많은 이적(異跡)을 행하였다고 전해진다. 아쉽게도 계송과 어머니 제문 외에 남겨진 저술이 없으나 전해오는 일화들을 통해 그 편린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으며, 석가의 소화신으로 추앙받았던 조선의 거승이다. 초의선사는 '석가여래의 응신'이라고 하였고, 유학자인 김기중도 부처의 화신 즉 '여래의 응신'이라고까지 한 바 있다(정륜, 2006). 거칠 것 없는 무애함과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파격적 기행으로 유명하며 특히, '고시래'의 기원과 굴을 달리 부르는 석화(石花)의 의미도 진묵대사로부터 연유되었다. 진묵대사의 계송은 곡차를 먹고 난 뒤 깨달음을 얻고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작품으로 김달진이 그의 역서 '장자'에서 서시로 인용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며, 특히 정비석의 '소설 김삿갓'에서는 이 시를 공허스님의 시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저자는 진묵대사라는 것이 정설이다(<http://blog.paran.com>).

#### 2. 연구방법

연구진행의 상호 연락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장소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개별화하여 풀이한 뒤 다시 조합하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탐색되었다.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는 장소 자체의 내재적 특징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인의 경험적 현상을 통해 본 장소애착(topophilia)의 방식이다 첫 번째 장소감은 어떤 장소가 입지특성이나 경관 특히 조망특성 등에 의해 고유의 장소 특성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논



그림 2. 낙서전 내부에 모셔진 진묵 (1562~1633) 영정  
자료: <http://www.okmountain.com>

점에 근거한 공간의 입지와 조망 등 지리경관적 특성의 파악이다. 장소정체성 파악을 위해 지리정보자료 및 축척 1/5,000, 1/25,000(2005년 인쇄) 지형도와 생태자연도 등을 통해 입지 및 조망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망해사 경내와 망해사에서 진봉상 능선을 거쳐 심포항에 이르는 구간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해 지리경관적 특성과 주요 조망점에서 체험된 경관상을 기술하였다. 특히 망해대에서의 조망구도 및 낙서전의 좌향을 실측하였다. 또한, 대상 공간의 옛 지명인 만경현과 관련, 16~18C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승, 해동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그리고 광여도 등의 고지도 표기 특성과 해제 분석을 통해 망해사와 진봉산의 전래 지리경관적 위치는 물론 전통적 현상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고려하는 실존적 장소로서의 경관인지 태도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장소감은 어떤 장소가 실제적 또는 신화적이든 의미 있는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되어 특징적이고 고유한 상징성을 내포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인식에서 진봉대사의 칠연절구의 계승을 Relph(1976)의 '장소성에 관련한 4개 유형의 내부성 개념'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해석을 시도하고 Norberg-Schulz(1980)의 실존 경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과 분석과정을 거쳐 망해사와 진봉사의 지리적 상황에서의 문화경관 단서들을 재조합하고 장소 정체성의 개념으로써 경관주체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망해사와 진봉산의 입지 및 조망성

#### 1) 입지특성

김제는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꽃을 피운 중심지로 특히 정계 명경(김제·만경)평야는 호남평야의 핵이다(전북문화지도간행

위원회, 2004). 김제는 호남정맥의 여맥이 동남부까지 뻗어 794m의 엄피산(母岳山)을 중심으로 한 잔구성 산지들을 이룬다. 망망대해처럼 펼쳐진 노령산맥의 마지막 자락인 모악산의 산기운을 휘감아 머리는 만경평야의 지평선, 그 중에서도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광활면과 벽골제에서 죽산면에 이르는 곡창지역은 호남평야의 중심이며, 김제 지평선축제의 배경이다. 또한, 동진강과 만경강이 서해로 합류하는 지점인 진봉면은 삼면이 바다로 쓸물시 칠혹 같은 갯벌이 널려 있다. 새만금개발사업 시행 이전에는 쓸물시 드러나는 갯벌의 넓이는 무려 10km 정도로 황금 들녘 못지않은 망망한 지평선이다. 김제 너른 들 서쪽 끝, 만경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지점에 위치한 진봉산에서는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 특성을 보인다. 특히 진봉산 능선에는 망해대라는 3층 구조의 전망대에서 광활한 평야지대와 서해 낙조의 광경을 볼 수 있다.

수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조영되는 사찰 및 암자의 입지선정은 여러 가지 영향인자가 배경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의 교리적 배경은 물론 영지신앙으로서의 산악승배사상과 택지법으로 작용하였던 비보사상 역시 사찰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홍광표, 1996). 또한, 공간구성기법상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계층적 질서 추구를 위한 공간축 설정을 통해 자연순응적이건 의도적이건 외부 경관의 '내적 질서로의 합일(合一)'을 기도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현재는 망해사와 관련한 사료의 빈곤과 지형의 변경 등으로 정확한 가람배치 및 규모 등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김제 지역 미륵신앙의 본산인 금산사 창건 연대와 관련하여 망해사가 금산사의 세력권과 무관치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미륵신앙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단순히 부설거사와 묘화부인과의 인연으로 볼 수도 있다.<sup>2)</sup>

그림 3은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진봉산 또는 망해사 주변의 개발 플랜이다. 새만금방조제는 고군산군도의 가력도-신시도-야미도-비응도로 연결된다. 진봉산 정서단으로는 생태마을과 인공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만경강 합류부에서 망해사 북서방향으로는 호안습지와 인공수초섬이 계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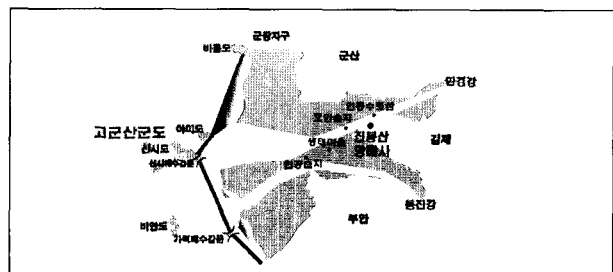


그림 3. 진봉산 주변과 새만금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2) 조망특성

자연해안은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진 암석해안과 모래로 된 사질해안으로 구분된다. 김제군의 전체 해안선 길이 41km 중, 자연해안은 10여 km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간석지의 간척을 위해서 쌓은 방조제인 인공해안이다(김제군, 1994). 특히 자연해안은 대부분이 봉화산(82m), 진봉산(72m), 국사봉(55m), 니성산(61m) 기슭인 잔구성 암석해안으로 망해사를 중심으로 한 진봉산 주변은 전형적이며 고유한 자연 해안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망해사에서 1.6km 거리에는 한적한 어촌인 심포항이 있고 싱싱한 해산물과 넓은 갯벌로 이름이 높다. 망해사 낙서전에서 서쪽으로 시선을 주면 '낮아진 염주처럼 떠 있는' 고군산열도가 눈에 들어온다. 경내 재식된 팽나무는 수령 3백 70여 년으로 수고 35m, 둘레 5.5m의 노거수로 진목대사가 낙서전을 창건하고 그 기념으로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큰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는 이 노거수 그늘에서 서해를 바라보면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관망할 수 있어 망해사의 명물로 보호하고 있다. 망해사 낙서전에서의 근경상의 서해를 향한 수직각은 -3°의 부각이며 수평각은 거의 0°에 가까우며 바다를 향한 낙서전의 좌향은 NE60°로 국사봉과 니성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내 중심에서는 원심적으로 서쪽의 고군산열도를 향한 조망의 창이 열려 있다.

그림 5는 진봉산의 망해대와 망해사를 주 조망점으로 한 조망특성과 주변의 생태자연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망해대와 망해사에서는 각각 고군산열도와 군산반도의 조망권이며, 망해대에서는 이와 함께 김제평야의 파노라마적 경관이 전개된다. 심포항과 망해사 주변 일대 그리고 봉화산 자락 일대와 해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경관으로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와 같은 조망적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기 위한 그림 4는 현 망해대 2층 누각에서 나침판을 이용, 상방 약 5°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팔방향 경관을 촬영한 것이다. 북쪽으로는 망해사로 이르는 연결동선이 조망되고, 북서쪽으로는 국사봉과 니성산 등 진봉산과 동일한 하안 단구지형이 펼쳐진다. 동측부는 전경의 진봉산 능선부와 원경으로 징계만경평야가 파노라마하게 전개된다. 남측으로는 심포항으로 뻗은 진봉산의 주능선이 연결되며, 남서측으로는 심포항과 멀리 원경으로 진봉반도 끝자락의 봉화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편, 서쪽으로는 까마득히 고군산열도가 보이며 북서쪽으로는 군산반도의 모습이 원경으로 들어온다. 이와 같은 조망 전개는 '해안경관과 내륙경관의 경계 영역'으로서의 진봉산의 입지성과 망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2. 고지도로 본 망해사와 진봉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지도 중 비변사인방안지도를 제외하고 고군산 일대의 바다가 상대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해동지도에서는 진영이 설치되었던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꽃리도 그리고 횡경도 등의 섬들이 포진하고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는 고군산도의 모습을 망해사와 진봉산을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심적 시점으로 등극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섬의 고군산진이 표시되고 육로와 함께 섬 사이의 해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고군산열도 지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선유도는 연안해로의 거점이요 관방의 요충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경관성으로 고군산팔경(망주폭포, 명사십리, 평사낙안, 삼도귀범, 장자어화, 무산십이봉, 월영단풍,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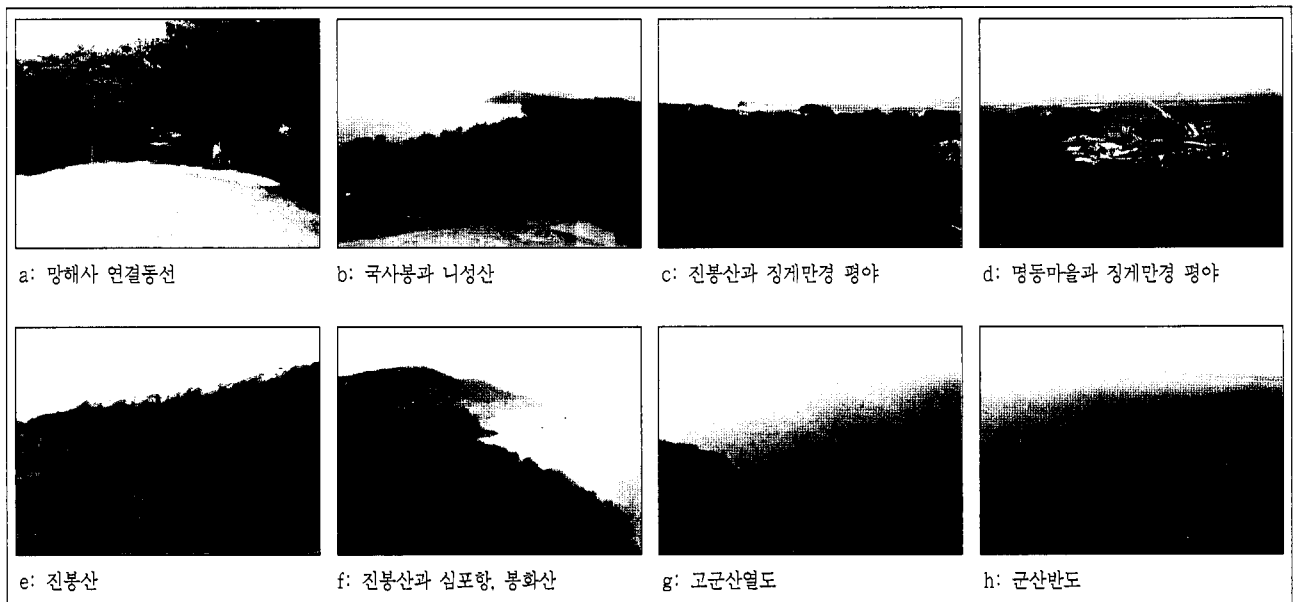


그림 4. 망해대에서 조망된 팔방위 경관상  
 범례: N: 북쪽, NE: 북동쪽, E: 동쪽, ES: 동남쪽, S: 남쪽, SW: 남서쪽, W: 서쪽, NW: 북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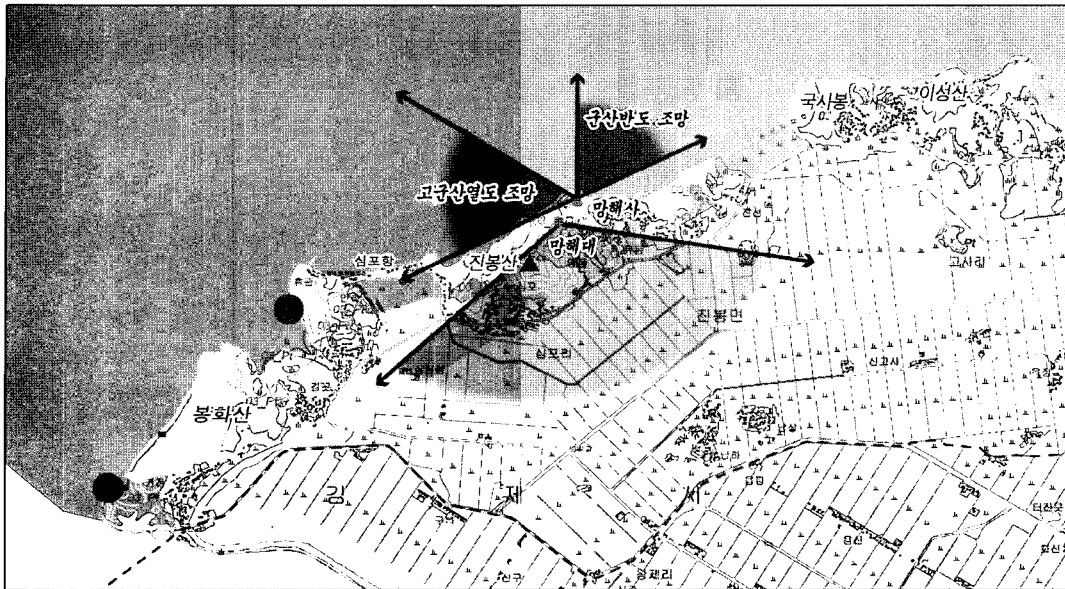


그림 5. 망해사와 진봉산의 조망구도

자료: 환경부 생태자연도, 2006년 발행

범례: [diagonal lines] 1등급, [solid black] 1등급(자연경관), [horizontal lines] 2등급 [vertical lines] 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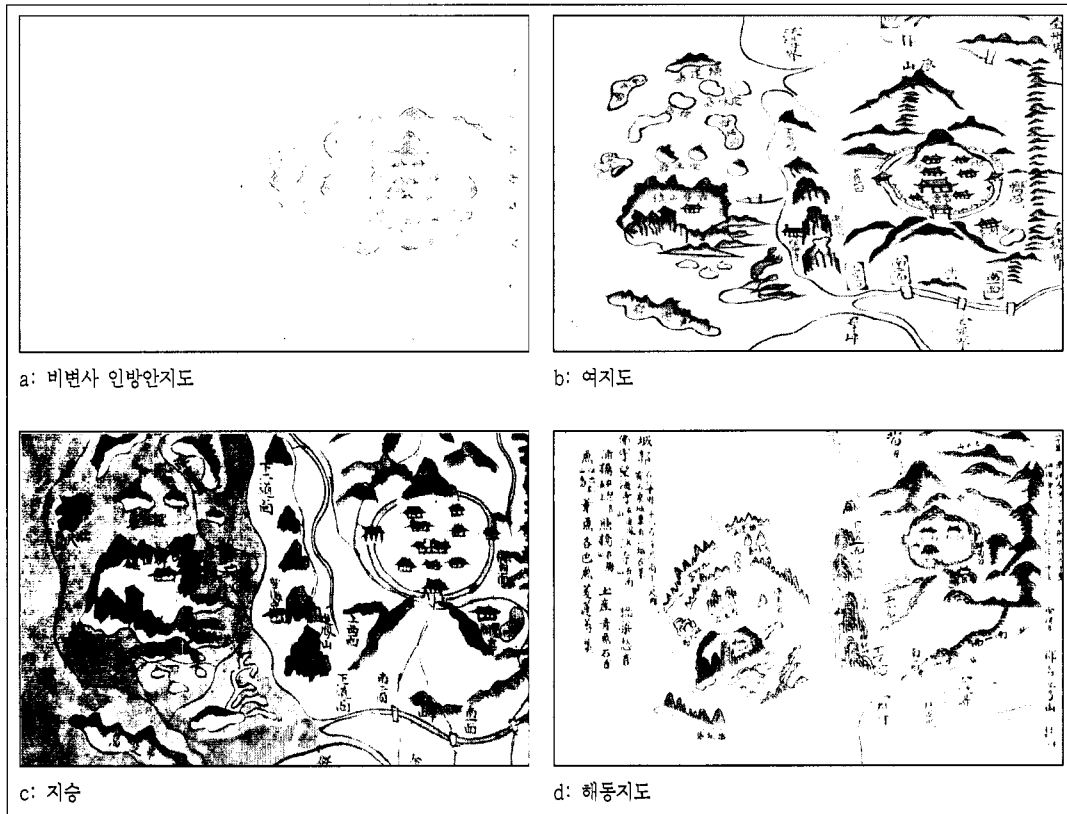


그림 6. 고지도상에 표현된 망해사와 진봉산

자료: a: 18C 중반, b: 16C 후반~17C 중반, c: 18C, d: 18C

유낙조)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www.sunyudo.com/). 이를 볼 때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고군산도는 중요한 전략적 요

충지로서의 지리적 중요성 이외에 친근하고 아름다운 경승으로서의 경관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

표 1. 고지도별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 표현 특성

구분	망해사와 진봉산	고군산열도와와의 관계	읍성	만경평야와 주변하천	기타 표현
비변사 인방안지도	· 중첩하여 표현 · 진봉산의 일부로써 망해사	· 확대 · 근접하여 표현	· 읍성 중심의 위요 표현	· 광활한 평야	· 능제저수지 표현
여지도	· 해안가 산지의 강조 표현	· 확대 · 근접	· 읍성의 강조표현		· 진주와의 경계 명료
지승	· 진봉산의 규모 강조 · 진봉산과 망해사 중첩	· 확대 · 근접 표현	· 확대 · 강조표현 · 객사 중심	· 만경강의 강조	· 읍성 남쪽의 압호정 · 룡제저수지
해동지도	· 진봉산 등 주변 산을 연결 강 조하여 표현 · 진봉산과 망해사 중첩	· 고군산 군도의 정밀 표현 · 조운선의 해로 표현 · 해상 압초의 표현	· 읍성의 위요감	·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로 확대 표현	· 다리의 다수 표현 · 입석산 후면의 봉대 표현

다. 지도 동측은 현재의 김제시 만경읍,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과 광활면 일대이다. 해안선과 근접하여 표현된 망해사와 진봉산은 현재의 광활한 평야지대인 광활면에 속하는데 현재의 해안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진봉산은 높이 72.2m의 작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4개 고지도 공히 강조하여 크게 표현되고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현 전체가 광활한 평지에 있기 때문에 높고 큰 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긋봉긋 연결된 형태로 그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옛 만경현은 산지가 거의 없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지도 모두 산줄기의 표현이 과장되어 있으며, 해안가 산지들은 100m 미만의 표고를 갖는 저산지임에도 진봉산의 규모가 웅장할 정도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읍치와 고을의 풍수적 명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회화식 근현지도의 일방적 표현방식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망해사와 진봉산의 입지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실존체험의 전승과 누적에 의한 문화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표현이다.

### 3. 진묵대사의 계송 해석

계송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天衾地席山爲枕: 하늘을 이불, 땅을 자리, 산은 베개 삼고  
 月燭雲屏海作樽: 달은 등촉, 구름은 병풍, 바다를 술잔삼아  
 大醉居然仍起舞: 크게 취해 거연타 일어나 춤추니  
 却嫌長袖掛崑崙: 아, 날리는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 염려되  
 누나

계송의 전개과정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문학적 구조와 함께 진묵대사와 주변 경관요소들이 어떻게 동화되고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정륜(2006)은 진묵이 대자유인으로서 살았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언어적 상징으로 계송의 의미를 평가한 바 있다. 시의 '기(起)'는 망해사가 진묵대사에게 거주 공간이자 수량의 도장임을 암시하며 '승(承)'은 바다를 향한 망해사의 입지적 방향성과 지리적 상황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바다를 술잔이자 지향객체로 인

식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전)轉은 방향성과 일체감이 어우러져 느끼는 '장소의 영혼'에 부응하는 장면으로 해석되며, 마지막으로 '결(結)'은 표면적으로 간접적 내부성의 표현으로 곤륜산이라는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노래함으로써 완전한 감정이입의 내부성(內部性)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감정적 유대감으로 장소와 일체화 되고 망해사를 중심으로 진봉산 등 주변의 경관을 신선계로 동일시하는 강한 장소애착의 특성이 표출되고 있다.

진묵의 고향인 만경읍은 일찍이 삼국시대에 부설거사가 머문 곳이며, 또 근래의 고승인 탄허스님의 출생지이기도 한 불연(佛緣)이 깊은 땅이다. 김방용(2001, 2006)은 진묵조사의 사상을 요약 나열하면서 진묵의 범택과 선사상, 진속일여(眞俗一如)의 사상, 소요유(逍遙遊)사상, 효사상 그리고 석가모니의 화신불을 언급한 바 있는데, 특히 소요유의 사상의 근거를 앞서의 계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sup>4)</sup> 한편, 시인 고산(高山)도 망해사의 절경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였다(김제시, 1995).

문을 열면 모두를 잃겠네 주인은 목탁을 석가모니는 중생을 잃고 나는 나를 잃고  
 바다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네 일체는 하나의 공허로  
 만파(萬波)는 하나의 추파(秋波)로 서역만리에 불기슴 펴고,  
 지는 해도 안겨 오네, 하늘도 넓게 바다를 펴고,  
 짐짓 갈매기도 깨우친 대불(大佛)의 전개여.....

고산의 시에서도 역시 소요유의 사상이 읽혀지며 망해사의 망자(望字)가 결국은 '잃음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진묵대사의 계송의 이미지 도해와 시의 의미 내용을 Relph(1976)의 '장소의 독자성에 대한 7단계 해석 개념' 중 내부성의 개념으로 풀어 망해사와 진봉산에 대한 현상학적 장소탐색을 시도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lph의 내부적 관점의 장소성을 4단계로 정리할 때 칠언절구의 기승전결로 구성된 계송의 '기'와 '승'을 해당 장소에 대한 '좌우'의 공간적·경관적 설명이자 수평적 구도이며 '전'과 '결'은 '상하'의 행동적·역동적 지향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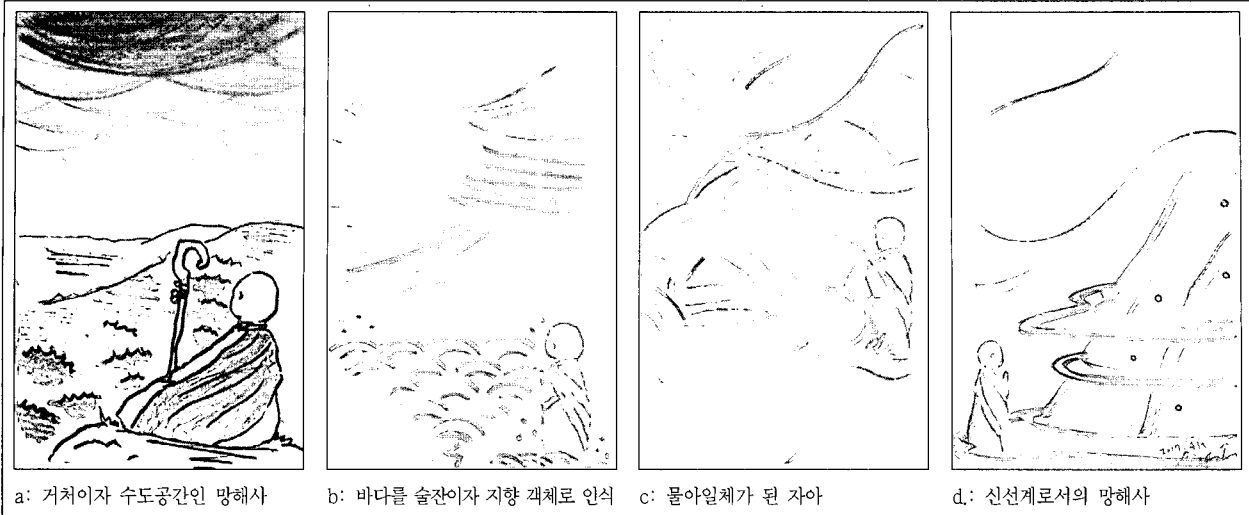


그림 7. 진묵대사 계승의 도해(圖解)

이는 좌우상하의 이항대립의 구조를 통해 선형적 지향성을 완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망해사와 진봉산의 수평, 수직과 구조와도 일치하며 망해사의 바다와 산이 맞닿은 장소성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실존적-형태적-감정이입적-대리적 내부성 개념의 틀 속에서 볼 때 해석 대상 공간은 하늘-땅-진봉산 그리고 달-구름-바다의 실존적 행태적 내부성을 바탕으로 한 수직·수평적 이미지에서 취합-일어섬-춤-곤륜산(신선의 세계 또는 서방정토)으로 향하는 감정적 대리적인 향천 내부성으로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바다-망해사-진봉산-하늘'이라는 경계영역이 하나의 장소 속에 귀속된 내부성의 표현이자 애호공간 망해사의 독특한 '공간 독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은 진묵대사의 수도와 삶속에 어우러진 통일체로서의 내적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4.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과 경관주제 탐색

홍길동과 강건희(2004)는 장소의 주요 특징으로 중심성, 방향성, 연속성, 영역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남정훈과 이호진(2000)은 이에 앞서 장소는 사건, 위치, 경험의 요소를 포함하며 '장소성'이라는 어휘의 개념은 장소가 갖는 정체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뜻으로 정의한 바 있다. 앞서의 분석판 내용과 해석 근거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과 경관주제를 읽어보았다. 장소는 환경의 한 단위로서의 위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다른 장소와 구분될 수 있는 그 자체의 질서를 갖고 각개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의 사이에 동질성과도 관련되며, 인간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와 외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 및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와 상징 등으로 구성된 다(김성수와 최왕돈, 2002).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진봉산의 장소 특성으로 재길관리 유락명대(在吉串里 有落明臺)라 기술하여 산록부에 조망을 위한 대(臺)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 현재 3층 시멘트 구조물인 망해대가 있는 지점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또한, 이 자리는 유락명대(有落明臺)라는 기술과 관련하여 원래 낙명대라는 누정의 입지 터로 서해낙조의 명소로 익히 알려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망해사에 대한 지명 설명에 '재진봉산(在進鳳山)'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망해사와 진봉산 그리고 망해산의 지명에는 '망해'와 '진봉'을 같은 의미 연결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공간을 하나의 '동질적 영역'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3에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경관 망해사와 자연경관 진봉산은 각각 조망특성으로 수평선과 지평선을 지향하는 가운데 망해사는 종교적, 조망적 장소 특성이 강한 반면, 진봉산은 지리적, 조망적 장소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망해

표 2. 진봉산과 망해사와 관련된 지명 고찰

구분	지명	내용	출전	비고
山川	進鳳山	在吉串里 有落明臺 一作 望海山	1, 2 3, 4, 5	고군산
	月影臺, 望主峰, 仙遊臺	在縣西水路 80(90)里	4 3	
樓宇	去思樓	客館東	1	
學校	榔校	西2里	1	
佛宇	望海寺	在進鳳山	1, 2, 4	
	沙寺	在南山	1	

자료: 유재영,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재구성  
 범례: 1: 신증동국여지승람, 2: 동국여지지, 3: 대동지지, 4: 호남읍지, 5: 증보문헌비고



표 3.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과 경관주제 탐색

구분	유형	해당 이미지	경관유형	장소적 속성				단서
				중심성	방향성	연속성	영역성	
망해사 (인공)	종교적 장소성		Classical Landscape	수도와 수행의 場 + 所				사찰역사
	조망적 장소성		Cosmic Landscape	바다와 산 사이	바다로 향한	평야와 산과 바다가 이어진	바다와 산으로	고지도분석 지형도분석 相觀
	상징적 장소성		Romantic Landscape	望海, 서방정토				장소명 해석 계송 해석
식별 $\longleftrightarrow$ 수평선으로      동일시 구별 $\longleftrightarrow$ 지평선으로      Identification				景 觀 맥 락 의 关 系 ( 실 존 적 장 소 )				
진봉산 (자연)	지리적 장소성		Romantic Landscape	진봉반도의 대표적인 경승지 평야와 바다의 접점 심포항(포구)과 인접				GIS도면, 지형도분석 망해대에서의 경관 체험
	조망적 장소성		Romantic Landscape	너른 들 바다사이	바다로 너른 들로 향한	평야와 바다로 이어진	들과 바다 가운데 돌출한	지리적 상황 相觀
	상징적 장소성		Complex Landscape	서해바다의 조망점, 서해낙조의 시점장 징계맹경평야의 랜드마크, 進鳳(봉황의 진출)				고지도분석

사는 '망해(望海)', '서방정토'의 상징적 장소성을 모티브로 하며, 진봉산은 징계맹경평야의 랜드마크이자 서해낙조의 조망점으로서의 장소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두 공간의 서로 또 각각의 장소적 특성과 영역성을 간직하면서 동일화된 장소정체성의 유대감을 보임으로써 '서해바다를 향하는 만경평야 가운데 돌출한 땅 진봉산' 그리고 '그 속의 바다로 향한 망해사'로서의 경관맥락적 특성에 의해 서로 밀착된 내적 구조의 동일체로 파악된다. 또한, Norberg-Schulz(1980)의 실존적 입장에서 구분한 4개의 경관 유형으로 분류해 본 결과, 비록 거주자가 아닌 제 3자의 분류이긴 하지만 4개 유형 의미경관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망해사와 진봉산이 갖는 바다와 산과 평야 그리고 갯벌과 포구로 구성된 자연환경의 다채로움과 특성을 설명하며 빛과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한 경관 특질을 보이는 고유의 장소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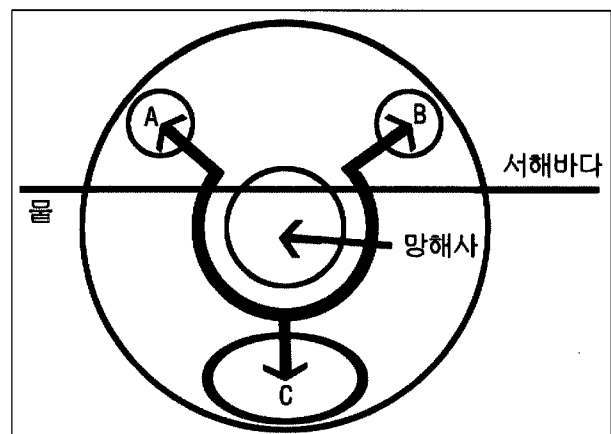


그림 8. 망해사와 진봉산의 지리경관적 위계구조  
 범례: A: 망해사→심포항→새만금방조제→고군산열도  
 B: 망해사→군산반도  
 C: 진봉산→징계맹경평야→김제평야→호남평야

망해사를 안고 있는 진봉산 주변은 암석해안으로 전형적이고 고유한 해안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새만금개발 계획상 진봉산 주변에는 생태마을과 인공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만경강 합류부에서 망해사 인근에는 호안습지와 인공수초섬이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호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망해사 또는 진봉산에서의 서해 조망은 완벽하게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대부분이 충적평야로 이루어진 김제만경평야의 옛 모습도 상당 수준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진봉반도는 북쪽의 옥구반도와 남쪽의 변산반도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해안 쪽으로는 고군산군도가 위치하는 만입지이며 진봉산 해안을 비롯한 주변 간석지 또는 갯벌(tidal flat)은 강에 의해서 하류까지 운반된 미립물질이 조류에 의해서 하구로 이동하면서 파도의 작용을 적게 받는 해안에 퇴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해류의 이동이 거의 정지된 담수호의 상태에서는 만경강 등 상류 하천의 수질이 관건이 되겠지만 옛 지형지질적 경관의 정취는 사라질 것이다. 단, 수질의 절대적 개선으로 인공습지 등이 최대한 정상천이계열에 가까운 식생회복을 보임으로써 나문재 등의 염생식물이 정착되기를 기대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생태적 경관성의 변질 우려는 수질 등을 볼 때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망해사 주변의 진봉산 일대의 산지와 구릉이 갖는 장소성과 의미경관의 특성과 최소한의 원형질적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고유의 경관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미래의 경관회복과 복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본다.

## V. 결론 및 요약

서해안 유일의 해안사찰 김제 망해사와 진봉산을 중심으로 입지 및 조망성을 탐색하여 고유의 장소성을 구명하는 한편 경관정체성의 파악과 보전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경관 망해사와 자연경관 진봉산은 각각 수평선과 지평선을 지향하는 조망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하늘-땅-진봉산 그리고 달-구름-바다의 실존적 수직·수평적 이미지에서 취합-일어섬-춤-신선계(또는 서방정토)로 향하는 불교적 이상향인 천향성(向天性)으로의 상승적 의미경관상을 추출할 수 있다.
2. '바다-망해사-진봉산-하늘'이 하나의 광역경관권역 속에 귀속된 중용적 내부성의 표현이자 애호공간 망해사의 '공간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은 진목대사의 수도와 삶 속에 어우러진 현상(사찰+산)과 본질(불교의 교리)의 통일체로서의 조화와 중용을 함축하는 심상경관으로서의 내적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3. 문화경관 망해사는 종교적 의미경관의 조망 특성이 강한

반면 자연경관 진봉산은 지리적 실존경관의 조망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망해사는 '망해(望海)', '서방정토' 등은유적 장소성을 모티브로 하며, 진봉산은 정계만경평야의 랜드마크이자 서해낙조의 조망점으로 직유적 장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4. 망해사와 진봉산은 각각의 장소성과 영역성을 간직하면서 리듬감 있게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장소성의 유대감을 보임으로써 '서해바다를 향하는 만경평야 가운데 돌출한 땅 진봉산' 그리고 '그 속의 바다로 향한 망해사'의 심상경관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밀착된 내적구조의 통일체로 승화된다.

주 1. 낙서전은 원래 통일신라 경덕왕 때 통장대사(通藏大師)가 창건하였다가 땅이 무너져 바다에 잠겨 버렸다고 전해진다. 현재 건물은 진목대사가 지은 것이고 진목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남겼으며 지금까지 그 일화들이 전해진다. 그 후 묘화(妙花), 심월(心月)대사가 수도했으며, 1933년과 1977년에 두 차례 중수하였다. 팔작지붕의 'ㄱ'자형 건물이며 앞으로 마루가 튀어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루에 범종이 걸려 있었으나 새로 지은 종루로 옮겨졌다. 낙서전 앞에서는 황해와 멀리 고군산군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일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주 2. 부설거사와 묘화부인의 연봉으로 등운(登雲)과 월명(月明) 두 자녀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되게 하고 두 자녀를 위하여 지금의 변산에 있는 등운암과 월명암을 지었으며 현재 성덕면 고현리마을과 묘화리(妙范里)는 옛날 부설거사와 묘화부인으로 인연으로 연유된 마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부설거사가 망해사에서 입증하면서 읊은 계송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目無所見無分別 耳聽無聲絕是非 分別是非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귀에 소리 없는 소식 들으니 시비가 끊인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 버리고, 단지 마음의 부처를 보았으니 심물에 들어가 의지 하겠노라.

주 3. 고군산군도는 고려시대에는 려·송무역로(麗·宋貿易路)의 기항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연안항로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극초부터 군산도(현 선유도)에 수군진영이 창설되었고 세종 초기에는 이곳의 군산진이 옥구현 북쪽 진포로 이동하면서 '군산'이란 명칭까지 옮겨감으로써 이곳을 '고군산도'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곳의 수군진터에서 동편 건너, 망주봉 아래에 있는 오룡묘는 이곳에 기항하는 항해선들의 해로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처였다.

주 4. 진목의 생애는 생과 사, 진과 속을 넘어 자유자재하다. 마치 장자의 소유유에 등장하는 진인의 모습처럼 절대자유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절대자유의 불교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잠자리로 하고 구름을 병풍 삼아 무애춤을 추는데 팔을 뻗으면 곤룡산에 걸린다는 이 계송은 장자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대자유의 정신이며 불교의 목표가 부처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부처란 바로 대자유의 삶을 구가하는 자이다.

## 인용문헌

1. 김덕현(1999) 삶의 질을 위한 경관 독해, "자연미"와 "장소성"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시론,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는문집 12: 23-37.
2. 김방룡(2001) 증산교와 진목대사, 신종교연구 4:135-158.
3. 김방룡(2006) 설화를 통해 본 巖窟·玉의 삶과 사상, 한국불교학, 제44집: 321-340.

4. 김성수, 최왕돈(2002)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장소성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1): 313-316.
5. 김제군(1994) 김제군사. 전라북도인쇄공업협동조합: 93-114.
6. 김제시(1995) 김제시사편찬위원회. 김제시사. 학예사: 1449-1500.
7. 남정훈, 이호진(2000) 현대건축에 있어서 장소성 표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 529-532.
8. 유재영(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주)민음사: 272-274.
9.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5): 169-184.
10. 이영경(1996) 사찰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 4: 59-67.
11. 이정임, 김진균(1987) 전통주거건축환경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17. 18C 한국화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1): 93-96.
12.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75-193.
13. 전라북도 김제군(1994) 전라향토문화연구회. 김제인의 유적. 문정사: 360-377.
14. 전북문화지도간행위원회(2004) 땅은 바다를 안고. 동방미디어: 115-130.
15. 정윤(2006) 모악산과 불교. 진표율사와 진북대사를 중심으로. 선도문화학술대회논문: 145-169.
16. 홍광표(1996) 동양조경사 사찰조경편. 기문당: 289-324.
17. 홍길동, 강건희(2004) 현대건축에 나타난 장소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1): 347-352.
18. 환경부 생태자연도(2006).
19. Lim, Gill-Chin and J. Albrecht (1987) A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ning theory: use of phenomenology. The J.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4(1): 14-30.
20. Norberg-Schulz, C.(1980) Genius Loci: Towards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s.
21.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22. Tuan, Yi-Fu(1976) Geopietry In Geographies of The Mind, Edited by David Lowenthal & Martyn J. Bowd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1-39.
23. <http://blog.paran.com/news88/12632142>
24. [http://www.sunyudo.com/tour/tour\\_a.asp](http://www.sunyudo.com/tour/tour_a.asp)
25. [http://www.okmountain.com/gallery/temple/98\\_/8-2.htm](http://www.okmountain.com/gallery/temple/98_/8-2.htm)

원 고 점 수 : 2007년 6월 5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7년 8월 6일  
 3인익명 심사필